

2018년 2월 10일, 한림읍 월림리 월림리노인복지회관, 송정희 조사.

제보자1: 변명림(남, 1932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제보자2: 문일선(여, 1940년생, 한림읍 월림리)

- 줄거리: 계란 장사꾼이 일본 사람에게 계란을 팔려고 일본 말을 배웠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계란을 팔 수가 없었다.

[제보자2] 왜정시대 일본놈 우시게 소리 훈 말 하나 곶앙 놔두카?

[조사자] 예. 예.

[제보자2] 옛날에 왜정시대에 독세기 장시가 그 왜정놈 군인신디 풀젠 다망꼬, 오망꼬. 다망꼬 사렌 허젠 헌 게, 오망꼬 사렌 곶아부난, 일본 놈이

“고라.”

했거든, 오망꼬 알아지쿠꽈? 오망꼬 이거. 다망꼬, 계란 이름이 다망꼬인디.

오망꼬 사렌 헤부난

“곶아.”

일본 놈이.

[조사자] 곶아는 뭐꽈?

[제보자2] 이놈, 헤그네 욱헌 거주게.

“곶아!”

영 허난

“곶지 안 헛우다.”

“박아!”

영 허난, 욱헌 거주게.

“박지 맙서. 까집니다.”

경 헌 말 훈 번 들어봐도 웃인 말.(웃음)

[제보자1] 계란 장사가 일본을 갔는데 계란 장사가 똥이렌 곶으멍 계란을 팔아냐 허니깐이
“다망고 가이나사이. 다망고 가이나사이.”

허면 팔아준다고 허니깐, 다망고 가이나사이라는 말을 그만 잊어버려가지고.

[제보자2] 오망꼬 가이나사이.

[제보자1] “오망꼬 가이나사이. 오망꼬 가이나사이.”

가단 보니깐, 파출소에 순경이 샷거든

“오망꼬 가이나사이.”

허난

“굴아!”

“굴지 안 현 엇그제 낫우다.”

“아웁!”

“아홉 개 아닌 열두 개.”

“박아!”

“박지 맙서. 까집니다.”

[제보자2] 아웁은 안 들어보고, 것도 어디 금악 사름이 헛덴 헛디다. 거 일본 사름 올 때, 7썤나 현 말은.

[제보자1] 다시, 다시는 나 곧는 식으로 굴아봐.(웃음)

[제보자2] 삼춘은 일본서 헛젠 허는 말이고 나는 제줏사름이 굴은 거.(웃음)

[제보자1] 제줏사름이 아니라 아무디 사름이라도 나도 들은 말이지.(웃음)

- 핵심어: 다망고, 오망꼬, 일본사람, 파출소, 순경, 계란장시(계란장수), 독세기(계란), 일본말